전주매일
www.jjmaeil.com

6면
전북 수산식품, 수도권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음 4월 3일) 제3976호 대표전화 (063)288-9700

군산·김제·부안, 하나의 경제권으로 뭉친다

민주 전북 후보자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 시동
RE100·AI·수소산업 중심 미래산업벨트 구축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6명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과 새만금의 대도약 비전을 제시한 뒤 두 팔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김의겸 국회의원 후보,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이원택 후보와 군산시장에 출마한 김재준 후보, 김제시장에 출마한 정성주 후보, 부안군수에 출마한 권익현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출마한 김의겸 후보, 군산·김제·부안(을) 지역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 등 6인이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추진을 선언하며 '전북과 새만금의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6인의 후보들은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전략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은 더 이상 전북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을 이끌 거대한 성장축"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 체계로 새만금의 미래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군산·김제·부안이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특별자치단체연합을 본격 출범시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아시아를 향한 국제 거점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산업과 관광, 물류와 재생에너지, 첨단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제공항과 철도, 남북축도로, 항만 등 핵심 SOC를 완성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군산·김제·부안이 따로 움직이면 지역 현안에 머물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국가 전략사업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후보는 "전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군산·김제·부안 간 갈등과 반목이었다"며 "현대차 9조 투자라는 획기적 기회가 찾아왔지만 갈등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갈등을 넘어선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경제공동체를 통해 함께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면 행정구역 경계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처럼 군산·김제·부안도 공동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38만 군산·김제·부안이 하나로 힘을 합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현대차 투자 유치는 새만금에 찾아온 100년 만의 기회"라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와 AI·로봇·수소·첨단제조·데이터센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도 조기 구축해야 한다"며 "민주당 중앙당과 국회, 전북도정, 시·군정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 규모와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연대"라며 "군산·김제·부안의 자부심은 지키면서 세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아시아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만금의 성장이 도민의 삶과 연결되는 체감형 성장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원택 후보는 "관할권 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절차에 따라 해결될 사안"이라며 "특별자치단체연합은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경제공동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관할권 갈등으로 새만금 개발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며 "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산업·관광·SOC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당선되면 금년 안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출범시킬 것"을 약속했다.

정성주 후보와 김재준 후보도 "관할권 문제와 경제공동체 추진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만금 발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지방선거 이후 각 시·군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특별자치단체연합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원택 후보는 "군산·김제·부안이 하나로 움직이면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전북의 진정한 비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새만금 지역은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3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영유권 주장 분쟁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었으며, 최근에도 3개 시군의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음식물 쓰레기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도교육청, '잔반 인증 챌린지' 운영… 하루 잔반량 30% 감축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ESG 실천 잔반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ESG 실천 잔반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식재료 낭비와 처리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하루 잔반량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핵심 실천 방식은 '먹을 만큼만 담기, 남기지 않기'로, 개인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ESG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잔반 없는 식판'을 촬영해 공유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도 운영된다. 직원들은 부서명과 이름(또는 별칭)으로 채팅방에 참여해 식판 사진을 공유하게 되며, 부서별 참여도를 집계해 우수 부서를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선관위 "지선 등 선거운동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선거법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된 장소에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 후보자 제외)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며, 각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언론기관이 주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방송시설이 주관하여 후보자연설을 방송할 수도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